

광양지역 8개 기업·단체, 아이들 성장·보육환경 개선 '앞장'

법원해무공사·아쿠아텍 등 어린이보육재단에 3253만원 기탁

광양 지역 8개 기업·단체는 최근 아이들의 성장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3253만원의 후원금을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기탁했다.

㈜법원해무공사(대표 이상국) 1000만원, 협회사여전해운(대표 이상국) 1000만원(※급증기업 대표 박충철), 500만원, ㈜아쿠아텍(대표 박양호) 500만원, 한국교육지원연구소(대표 박정숙) 100만원, 해방은어린이집(원장 박정남) 60만원, 광양한라비발디센트럴파크 어린이집(원장 하지승) 48만원, 광양푸르지오아센트럴 어린이집(원장 이민경) 45만원 등 8개 기업·단체에서 총 3253만원을 기탁했다.

이상국 ㈜법원해무공사 대표는 “항만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가 지역 어린이들의 성장을 보탬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양호 ㈜아쿠아텍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지역 보육 발전에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광양시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광용 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육재단은 올해 쌍둥이 안심 단체 보험, 어린이 원어민 영어 클래스 지원, 어린이 1인 1악기 예술교육 지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질병 간접아동(재가) 무료 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 지역 8개 기업·단체는 최근 아이들의 성장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3253만원의 후원금을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기탁했다.

사학연금-고흥군, 지역경제 활성화 힘 모은다

업무협약…지역소멸 대응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고흥군과 군청 팔영산홀에서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 공영민 고흥군수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 및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우수농 특산물 등 지역자원 연계 협력,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 정보 공유 및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흥보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사학연금과 고흥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상생발전의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향후에도 지역과 협력을 지속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goheung.kdscorp.com

신안소방, 겨울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 훈련

신안소방서가 겨울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특별구조 훈련을 실시,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나섰다.

8일 신안소방서에 따르면 대원들은 지난 7일 암태면 기동리 기동저수지 일원에서 겨울철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특별구조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낮은 수온과 결빙 등 극한 환경에서도 구조대원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수난구조 장비 유통 능력 숙달, 사고 유형별 인명구조 훈련, 수중 인명 검색과 긴급 상황 대응법, 안전사고 사례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구조대원들은 결빙 수면에서의 접근 방



법으로 훈련했다.

고상민 신안소방서장은 “겨울철 수난사고는 체온 저하와 결빙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건협 광주전남지부, 사회공헌 건강검진 전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용진육아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은 기초검사를 비롯해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촬영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도모했다.

박종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선도하는 지역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



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지역 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과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제시판

일정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드는 사람들 노후생활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 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취업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

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블로그 칭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부모 △강성추씨 별세. 한근고(KIA타이거즈 육성팀 프로) 씨 빙부상 = 7일, 광주시 VIP장례타운 VIP 20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62-521-4444

운세 (음력 11월 21일)

48년생 아랫사람에 해 끼치면 더 큰 화가 온다
60년생 먼저 어립고 뒤에 기쁠수 있는 날
72년생 협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라
94년생 정도만 지원수 있다면 문제 없을 것

51년생 부동산 투자 너무 앞서 가지 말라
63년생 속사장을 아랫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75년생 기본에 충실 하면 무난하게 이뤄질 것
87년생 흙결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99년생 경기망동하면 주변이 피곤해한다

54년생 금전이 생기지만 흡족하지 못하다
66년생 화를 부른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78년생 금전 융통 무리하지 말라
90년생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5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사회생 운세
69년생 부동산 거래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81년생 실개천 물고기 큰 물 만나 즐겁다
93년생 관용 베풀면 귀하의 사람이나 된다

49년생 시행착오에 따른 금전 손실이 발생한다
61년생 사업 순조로우면 수입이 있을 것
73년생 친구로 인한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85년생 다른 것에 흔들림 팔자 미라
97년생 아이디어가 적중되고 금전 이익이 있다

52년생 자녀일은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64년생 분한 일을 당해도 디자이너 말고 청아라
76년생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라
88년생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익이 보인다

55년생 돈 보다는 명예를 더 중시하라
67년생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
79년생 혀 소문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91년생 일에 마기 끼고 장애가 있는 날

58년생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은 취하라
70년생 공익을 앞세워 실천하니 문제 해결될 것
82년생 집안에 갈등 생기면 자녀와 상의하라
94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라

50년생 나가려 해도 나가지 못하니 답답하다
62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놓고 있어라
74년생 거래는 이뤄지나 큰 이익은 없겠다
86년생 해결하기 힘든 일을 친구가 돋는다
98년생 직장 갈등은 옛사람과 상의하라

53년생 자신의 깊이이설에 속지 말라
65년생 직장 발전을 이루는 새 기운이 보인다
77년생 흑과 백으로 명성을 분명히 하라
89년생 뜻밖하지만 이쉽게 질책 받을 수 있다

56년생 기회가 와으니 강력히 추진하라
68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80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투자하라
92년생 자민심은 금물이니 경순하라

59년생 뇌물에 유혹당하면 크게 후회한다
71년생 주변에 도움 청해도 회답이 없는 날
83년생 주변사람과 밀싸움하지 말 것
95년생 이성 문제 절차부심하게 된다

정은주 교수의 시주·증수·직령

동시에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 2000만원 상당을 전달해 현장의 돌봄 공백을 보완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나눔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인문도시 동구의 인연으로 이뤄졌다.

광동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일상의 기반을 회복하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생계를 함께 살피는 맞춤형 지원에 2000만원을 활용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